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30 “우리도 뛰다”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KT전남본부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북광주지사 청사 앞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메가패스·메가TV 처럼 빠르고 재밌게 달려야죠”

■ KT 전남본부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처럼 빠르게, ‘메가TV’처럼 재밌고 즐겁게 달리겠습니다.”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단체로는 처음 출전하는 KT전남본부 마라톤 동호회(회장 허영희·52·IDMC 팀장) 회원들은 “기록과 성적을 떠나 참가자 전원이 완주하겠다”고 의욕을 불사했다.

동호회는 지난 2006년 3월 결성됐다. 회원은 모두 22명. 그 중에는 채 5km도 힘겨운 초보자부터 42.195km 풀코스를 뛰어넘어 100km 울트라를 12번이나 완주한 마니아까지 다양하다.

그들은 놀두(매월 2, 4째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광주시 북구 청옥동 경렬사 주차장에 모인다. 경렬사~제4수원지~무등산장~충정사를 달리며 목은 스트레스를 푼다. 여름엔 화순 넘어 가는 너릿재 옛 도로에서 뛰는. 공기가 맑고 자연풍광이 좋을 뿐만 아니라 언덕길이어서 훈련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대회 처녀출전...참가자 전원 완주 목표

이번 3·1절 마라톤에는 5km 11명, 10km 2명, 하프코스 11명이 참가한다. 눈에 띄는 참가 선수는 100km 울트라 마라톤까지 섭렵한 베테랑 조충형(50) TMC 과장과 하프에 첫 도전하는 초보자 김구현(46) OMC과장.

동호회 기술고문을 맡고 있는 조 과장은 풀코스 30회, 울트라는 12회나 완주했다. 조 과장은 오는 4월5~6일 200km 울트라에 도전한다. 제주도를 일주하는 경기다. 그는 이번 3·1절 마라톤을

통해 컨디션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래서 풀코스가 아닌 하프를 선택했다.

“마라톤은 자신과의 싸움이어서 인생과 닮았습니다. 풀코스를 뛰다보면 2~3차례 고비가 옵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 마침내 완주의 희열을 맛보게 되는 거죠. 고비가 지나면 평온이 오고 평온이 지나면 다시 고비가 찾아오는 인생인 겁니다.” 조 과장의 마라톤론이다.

“마라톤은 자기 수양...고객 서비스에 도움”

마라톤에 입문한 지 1년 된 김구현 과장은 이번 3·1절 마라톤을 마라토너가 되는 디딤돌로 삼았다. 그는 “건강 유지에는 달리 기반한 것이 없다”며 “마라톤을 하고 나서 체중이 6kg이나 줄었다”고 자랑했다. 늦더라도 걸지 않고 뛰어서 완주하는 게 목표라고 말하는 김 과장은 산행으로 기초체력을 다지고 있다.

마라톤으로 건강은 물론 사람을 키우고 있는 답살 커피도 있다. 동호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용음(49)·이은주(46·영암 신북중 교사) 커피는 모임 때마다 금슬을 과시해 회원들로부터 시기(?)를 사기도 한다. 이번 대회에서도 어김없이 이 답살커피를 하프를 함께 뛰며 부부애를 과시하게 된다.

또 부부커피를 KT전남본부의 이정후(49)·김복순 씨, 장병국(47)·이옥신 씨 등 4쌍이 더 된다.

이정후 홍보실장은 “운동을 하면 쉽게 친해지기 때문에 동료들간 친목도모는 물론 고비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기수양도 쌓게 돼 고객 서비스에 도움이 된다”며 “남보다 한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고 고객의 편에서 고객과 함께 하는 KT전남본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성·영표·기현 ‘허정무호’ 지원

6일 월드컵 예선 튀르키예전 출전

출발부터 뼈저린 허정무호가 지원군을 맞이한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태극전사 3인방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31·토트넘), 설기현(29·풀럼)이 4일 오후 나란히 귀국해 축구대표팀에 힘을 보탠다.

허정무 감독이 한창 리그가 진행중인 상황인데도 이들을 부른 것은 2월6일 상암벌에서 펼쳐질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 튀르키예전과 홈 경기가 결코 놓쳐선 안될 한 판이기 때문이다.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 지상과제인 허정무호로서는 3차예선 첫 경기부터 그르칠 뎀 자칫 힘겨운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모른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공식 A매치 차출 규정에 따라 합류하는 이들은 영국 현지에서

주말 리그 경기를 뛰고 48시간 전에 장거리 비행하고 오는 터라 예상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허 감독이 해외파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은 새 대표팀이 지난달 30일 칠레전에서 0-1로 패배하며 보여준 무기력증과 결부돼 있다.

A매치 경험이 전무한 선수들이 상당수인 이번 대표팀에는 작년 아시안컵 대표선수 23명 중 5명을 뺀 18명의 얼굴이 바뀌면서 경험 부족을 드러냈다. 오랜만에 대표팀에 컴백한 이관우(수원), 김병지(서울)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주장 김남일(بت셀고베) 이외에는 리더가 없는 상황인데다 중원에서 공격의 돌파구를 열어줄 핵심 요원의 전천후 활약이 절실하다.

따라서 박지성의 컨디션이 좋았다면 3-4-

1-2 또는 4-4-2 포메이션에서 중심 핵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맡길 가능성이 높다. 박지성은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포워드를 모두 소화할 수 있고 아드보카트호와 배어백 호에선 측면 날개로 자주 기용됐지만 현재 로선 중인 사령관을 겸하는 공격 꼭지점 역할이 더 필요하다. 박지성은 지난달 31일 포츠담전에서 부상 복귀 이후 처음 풀타임을 뛰면서 체력이 문제 없음을 보여줬다.

설기현은 결정력을 발휘할 공격 일선 포워드로 투입할 전망이다.

비록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이 적었지만 그동안 A매치에서 보여준 실력이라면 충분히 파괴력을 과시할 수 있다.

특히 정조국(서울)이 칠레전에서 당한 부상으로 튀르키예전 출전이 어려워져 전방 공격수는 자원이 절대 부족한 처지가 됐다.

이영표는 포백일 경우 왼쪽 측면에 나서 과감한 오버래핑을 하면서 전체 라인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병지 ‘허정무호’ 중도 하차

허리 부상 심각...대표팀서 제외 광주 골키퍼 김용대 추가 발탁

무려 5년 2개월을 기다렸던 ‘곰지머리’ 김병지(38·서울)의 ‘대표팀 부활 프로젝트’가 닷새 만에 막을 내렸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31일 “김병지가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제외되고 김용대(광주)가 추가 발탁됐다”고 밝혔다. 김병지는 오후 광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허리 부상이 생

각보다 심각하다”며 “어쩌면 K-리그 연속 무교체 출전 기록(153경기)도 멈출 수도 있다”고 낙담했다.

김병지는 전날 치러진 칠레와 평가전에 선발출전했지만 경기 초반 곱을 한 뒤 오른쪽 허벅지를 시작으로 무릎 밑 근육까지 마비 증상이 오면서 결국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됐다.

한편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김병지의 자리를 대신할 선수에 김용대를 뽑았다. 김용대는 A매치 18경기에 출전해 7실점을 기록했다.

화재 : 상부(19 : 00·KBS N SPORTS) ▲07/08 여자프로농구(KB국민은행 : 우리은행)(16 : 50·SBS스포츠)



1일(금) ▲2008 PGA FBR 오픈 1R(05 : 00·SBS 골프·SBS스포츠) ▲07/08 V리그 여자부(GS칼텍스 : KT&G)(16 : 30·KBS N SPORTS) 남자부(삼성

2일(토) ▲2008 PGA FBR 오픈 1R(05 : 00·SBS 골프·SBS스포츠) ▲07/08 NBA(LA레이커스 : 토론토)(09 : 00·MBC ESPN)

한국전력 V리그 참여

내년 시즌부터 정식 회원 국가대표 문성민 1차지명

프로배구 아마추어 초청팀 한국전력이 내년 시즌부터 정식 회원으로 리그에 참여하게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31일 송파구 방이동 연맹 회의실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한국전력의 ‘제5구단’ 가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1945년 창단돼 63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전력은 준회원 가입금 4억원을 내면 2008-2009시즌부터 아마 초청팀이 아닌 정식 프로팀 자격으로 리그에 참여하고

신인 드래프트에도 참가할 수 있다.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 LG손해보험, 대한항공 등 남자 프로 구단들은 한국전력이 요구한 신인 1라운드 1순위와 2라운드 3명 지명권 요구 조건을 수용했다.

현재 선수 1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전은 내년 신인 드래프트 최대어인 국가대표 문성민(경기대·사진)을 잡고 약한 포지션인 세터도 보강할 수 있게 돼 다른 프로 팀과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 시즌에도 리그 참여 조건으로 1라운드 3, 4순위를 요구했으나 신인 드래프트가 임박한 상황이라 기존 구단과의 견을 좁히지 못해 프로 참가가 무산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There is a Namgol-dang in Gyeokrakjeon). It promotes a service for managing elderly parents' affairs, including legal and financial matters. Contact: 062-228-0702, 070-5103-6104.

Advertisement for '대산프리모 남녀가발' (Daesan Primo Men's and Women's Hair). It features a '가발' (hairpiece) sale with a 30% discount. It lists various services like '확장이전' (expansion relocation) and '초슬림!!' (super slim!!). Contact: 062-573-3250, 070-4821-1100.